열두 살 우크라이나 소녀가 들려주는 전쟁 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

예바 스칼레츠카 지음, 손원평 옮김

"전쟁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그 비극의 후유증은 몇 세대에 걸쳐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고 탈색시킨다. 문학과 예술의 영역에서 악인으로 그려지는 가부장조차, 실은 불과 몇 세대 위까지 끝없이 벌어진 전쟁 후유증의 피해자 혹은 피해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장편소설 '아몬드'의 작가이자 제주4·3문학상 수상자인 손원평의 말이다. 손 작가는 우크라이나의 열두 살 소녀가 쓴 소설을 번역하면서 "전쟁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고 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요즘 들어 부쩍 그 말의 의미가 실감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열두 살 소녀가 풀어낸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는 러시아 침공 이후 긴박하고 가슴 뛰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예바 스칼레츠카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하르키우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지금은 할머니와 아일랜드 더블린에 머물고 있다.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는 예바가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를 거쳐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다.

번역은 언급한대로 손원평 소설가가 맡았다. 손 작가는 "안전한 집에서 예바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무척이나 큰 죄책감을 동반했다"며 "어쩌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작업에 무모하게 뛰어든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도 머지않아, 혹은 언제든 전쟁의 관람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상상이었다"고 말한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정확히 일년이 되는 날이다. 2022년 2월 24일, '그 일'과 함께 12세 예바의 인생은 통째로 뒤흔들렸다. 당시만해도 러시아가 침공할 거라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현실화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24일 새벽 5시 10분. "쨍쨍 울리는 커다란 금속음에 갑자기 잠에서 깼다. 처음엔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부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집 근처엔 폐차장이 없기 때문이 사실 말이 안되는 생각이었다. 바로 그 때 그것이 폭격이라는 걸 깨달았다. 창가에 서서 러시아 국경 쪽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그래드 미사일이 들판을 가로지르는 걸 보고 있었다. 갑자기 거대한 로켓이 집을 스치더니 무시무시하게 큰 소리를 내며 폭발했고,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해도 예바는 또래처럼 평범한 소녀였다.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치고 영어를 배우는 아이였다. 그러나 2월 24일 그 날로 인해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 소녀는 "고통과 공포로 몸과 마음이 마비될 때마다 앉아서 글을 썼다"며 "목적은 이 경험을 글로 적어서 10년이나 20년이 지난 뒤에 내 어린 시절이 전쟁으로 어떻게 망가졌는지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바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건 무고한 시민과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다. "무자비하게 폭탄을 터뜨리며 수많은 도시를 지구상에서 지워 내고" 있는 러시아군의 행태는 범죄 그 자체였다. 소녀는 '전면전'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혼에 공포를 각인시킨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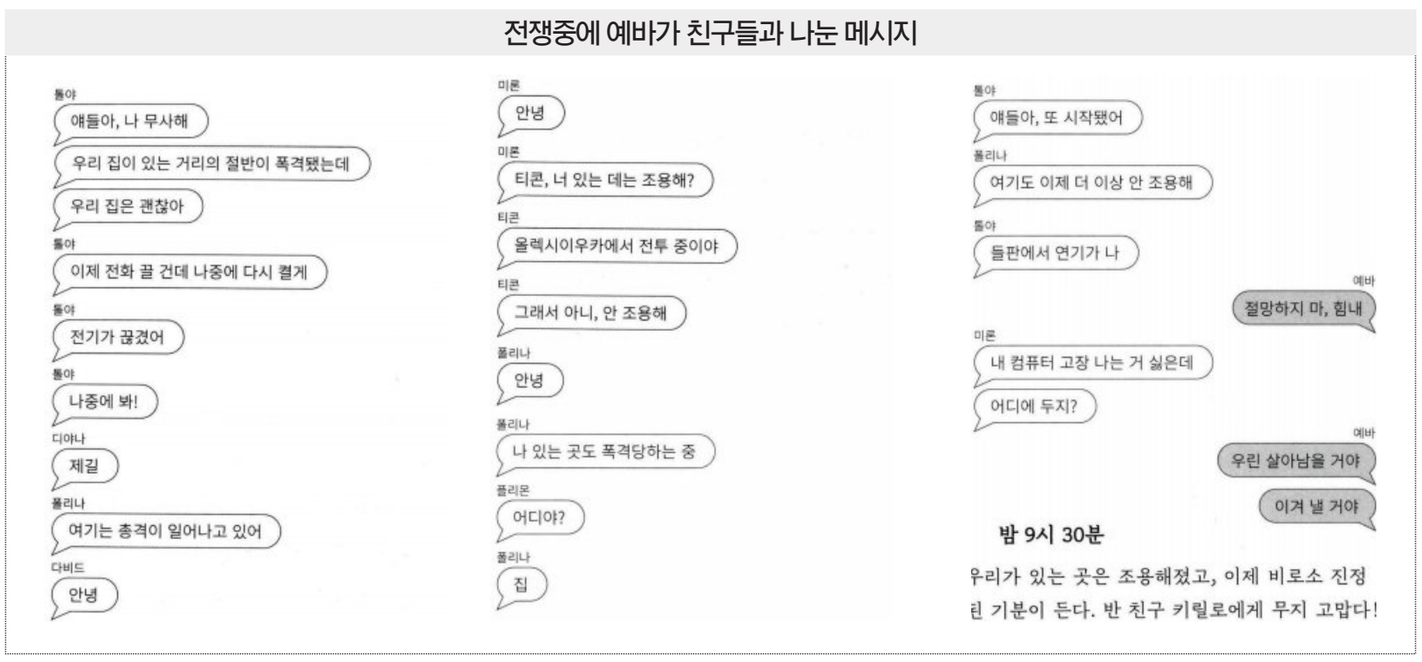
붕괴된 일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그럼에도 전쟁은 아이들의 비단 같은 마음을 꺾지는 못한다. 친구가 보낸 영상을 보고 웃다가 침대에서 떨어질 뻔하거나 폭격을 당한 집에서 고양이 인형을 꺼냈다는 소식에 안도를 하는 모습은 천진난만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예바는 말한다. 폭발음, 폭격음은 생각만으로도 고통을 준다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채 전쟁터에 나가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전쟁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신은 아마도 전쟁이 끔찍하고 참혹하다고 말하겠지만, 전쟁이 가져오는 진정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을 거다.

〈생각의힘·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난 그 여자 불편해

최영미 지음

"난 그 여자 불편해. 자기만 그렸잖아. 리베라와의 관계도 평등하지 않았어. 남편을 얼마나 숭배하는지 그림에서도 다 보여."

프리다 칼로에 대한 지인의 비판으로 시작하는 '난 그 여자 불편해'는 최영미 시인의 산문집이다.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시인은 그동안 '돼지들에게' 등의 시집과 '화가의 우연한 시선' 등의 산문집을 펴냈다. 특히 시 '괴물' 등 창작활동을 매개로 문단 내 성폭력과 남성중심 권력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의제로 환기했다. 이수문학상과 서울시 성평등 대상(2018년)을 수상했다.

시인의 이번 산문집 '난 그 여자 불편해'는 시사적인 주제부터 스포츠, 일상의 소소한 기쁨 등을 담고 있다, 일간지를 비롯한 매체에 게재됐던 글들을 모은 터라 시사성이 특징이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어떤 싸움의 기록'은 논쟁적이면서도 시사적인 부분에 초점을 뒀다. '어떤 싸움의 기록', '뒤로 가는 대한민국',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 '그녀를 위한 변명' 등이 담겨 있다. 2부 '인간은 스포츠 없이 살 수 없다'에서는 '죽더라도 수영장에서'를 비롯해 '게임은 속이지 않는다', '손흥민 선수의 추억', '다시 월드컵을 기다리며' 등의 글을 만날 수 있다. 3부 '어렵다고 생각한 일이 가장 쉽더라'는 세상에 대한 통찰, 생활에서 발견한 희로애락과 삶과 예술에 대한 단상이 모티브다. 재기발랄할 문장과 그러면서도 담백하고 치열한 언어가 돋보인다.

저자는 "기록하지 않으면 허공에 흩어졌을 시간들이 번듯한 형체를 갖추어 책이 되어 나왔으니, 문장이 모여 삶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이미출판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통계안목

송인창 외 지음

하나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시대다. 그것은 객관적인 해석보다는 자신의 입맛대로 통계를 해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왜 그럴까. 오늘날에는 좋은 통계도 있지만 오염된 통계 나아가 수상한 통계가 뒤섞여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무수히 많은 통계가 쏟아져 나왔다. 마찬가지로 이를 해석하는 각각의 입장도 천양지차인 경우도 있었다.

"위기 상황에 통계 왜곡과 오류로 인한 혼란은 문제를 오히려 더 심각하게 한다. 통계 왜곡은 체계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의 방해로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양산한다. 그리고 부정확한 통계는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와 기간을 과도하게 또는 미흡하게 만들어서 피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구심과 공포심을 갖게 한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을 역임한 송인창 박사와 진성애교양대학장을 맡고 있는 최성호 박사가 펴낸 '세상을 바로 보는 힘 통계안목'은 조작된 데이터와 숫자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치는지 면밀하게 고찰한다.

저자들이 책을 펴내게 된 데는 "좋은 통계가 있어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인생에서 후회나 억울함이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론 때문이다. 한마디로 "좋은 통계에서 좋은 인생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책에서는 평균부터 퍼센티지, 그래프와 도표 등 익숙한 나머지 속기 쉬운 통계의 기본 개념을 다룬다. 또한 부분으로 전체를 알 수 있는 표본조사와 인과관계, 확률 등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조심해야 할 속임수나 함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물론 기본기를 토대로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실전편도 있다. 〈바틀비·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시는 집을 짓지 않겠다

지윤규 지음

그는 "집을 지으면 수명이 10년 단축된다"는 말을 그냥 하는 소리로 생각했다. 하지만 14개월에 걸쳐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집을 짓고 나서 그는 "다시는 집을 짓지 않겠다"고 외쳤다.

물리학과 교수로 30년간 재직한 후 농부가 된 저자 지윤규의 책 '다시는 집을 짓지 않겠다'는 '농부가 된 과학자의 생생 건축일지' 형식의 에세이다. "언젠가 내 집 한번 지어 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는 이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하는 바람을 담은 책이기도 하다.

책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밭의 일부를 대지로 전화해 15평짜리 집을 지으면서 실제로 겪은 일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매일 매일 일기를 쓰듯 기록한 '건축일지'에는 집을 짓기로 한 순간부터 준공검사 후 취득세 납부까지 모든 절차, 비용, 현장, 사람살이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집을 짓기로 마음 먹으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기대에 부풀기도 했던", 그래서 "나와 아내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이야기를 했지만" 집 짓는 일은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때론 마음을 다치는 고난한 과정이었다.

'실험보고서처럼 소상하고 세태소설처럼 날카롭다'는 표지글 처럼 시공사 대표와의 첫만남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또 건축업자, 설계사, 공무원, 목수, 단순 작업자, 포클레인기사, 전기기사 등 집 짓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저마다의 사정과 입장을 접하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건축비용은 당초 예상액 1억원이 훨씬 넘는 1억 8695만원(시공사 대표에 떼인 돈 포함)이 들었다. 〈세로북스·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